

# '모심택시' 농촌 어르신에 효자노릇

### 농촌 고령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4% '만족' 운전자 친절과 노선형 운행, 전통시장·병원까지 운행 등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전주시 농촌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주시 모심택시가 이용객을 배려한 친절운행으로 이용자의 발이 돼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13개월 동안 모심택시가 총 1만 2,410회, 하루 60회 운행, 농촌마을 주민 1만4,853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농촌마을 어르신들을 모시러 간다'는 의미의 모심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보장과 이동편의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가 마련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로,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 이상인 마을,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인 5개동 20개 마을에 시행되고 있다.

전주시 모심택시는 시행 초기인 지난해 4월 한 달간 이용객이 800여명에서 현재 월간 1,450여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이유는 △운전자친절(40%) △노선형 운행(27%) △전통시장·병원까지 운행(26%)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몸이 불편한 노령자들의 경우

집 앞에서 승·하차 할 수 있고, 무거운 짐 운반 시 도움을 주는 등 운전자의 친절함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용객 연령은 △70대(68%) △50~60대(21%) △10~20대(11%) 순으로 조사됐다. 이용목적은 노령자인 경우 병원치료나 전통시장 장보기, 학생들의 경우 통학을 위해 이용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모심택시를 이용해 통학할 수 있게 되면서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요금(1대당 2000원)은 △매우만족 80명(61%) △만족 39명(29%) △보통 13명(10%)로 응답, 택시 기본요금보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만족했다.

이밖에,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모심택시가 계속 운행되길 바라며, 모심택시가 시내버스와 환승이 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주민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진정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한 '2017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이 사업운영으로 서비스만족도 부분 96.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교통모델 발굴사업 실시 후 대중교통만족도도 2016년 44%에서 2017년 98%으로 대폭 상승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2018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9,838필지(완산구 66,088 덕진구 73,750)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국세의 기준시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 홈페이지(www.jonju.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통

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조사를 실시한 후,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종업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재산 성공하고 업무 복귀** 6·13 지방선거에서 재산세에 성공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14일 업무 복귀에 나선 후 전주시의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전주시,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

### ARS·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납기 내 미납시 3% 가산금 추가

전주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18년 7월 2일까지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적립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되며,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자동차세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 시민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일, 12.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월에 합산해 한 번에 고지된다.

/송효철 기자

## 덕진구, 용정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완료 설명회 열려

### 토지 경계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될 것으로 기대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기평)가 14일 월곡마을회관에서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용정1지구 437필지(196,346㎡)에 대해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176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으며, 이후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60일 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 등기 촉탁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평관과 대나무지로 측량하여 만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 기존의 잘못된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현실경계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사업지구 내 토지경계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에 관한 많은 민원과 바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지역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작은 결혼식'

### 전주시, 내달 10일까지 희망 예비부부 모집 청년기획자의 재능 활용 스몰웨딩 진행키로

전주시가 청년 예비부부에게 작지만 의미 있고 특별한 결혼식을 선물해주기 시작했다.

시는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공간들을 활용해 예비부부가 희망하는 결혼식을 지원하는 '전주청춘시티웨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청춘시티웨딩은 전주시 청년과 행정의 공식 소통 창구이자 청년정책 제안창구인 전주시 청년희망단이 저소득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허례허식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시는 피로연과 하객음식, 기타 사치품을 제외한 웨딩 플래너와 예식 장소 및 현장조성, 예복, 헤어 등 모든 결혼식 관련 인력과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결혼식 장소는 전주지역 유흥 공간 중 예비부부가 희망하는 장소를 적극적으로 선정하고, 결혼식 내용 또한 사업취지 내에 예비부부가 희망하는 내용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부부중심의 소소하고 개성 넘치는 결혼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결혼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 사업과정에 청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깊다.



이를 위해, 시는 결혼식 기획을 포함한 사회와 메이크업, 축가, 사진촬영 등 결혼식 전 과정에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능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청춘시티웨딩을 통해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예비부부는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53-1213)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올 하반기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면서, 작은 결혼식 취지에 동의하는 전주시 거주 만18세~39세의 예비부부이다.

전주시 신성상산업본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가발한 결혼식은 과도한 결혼비용을 부담스러운 예비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의 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6·13 지방선거 전북지역 선거사범 241명 단속

### 2014년 지선보다 11% 감소

6·13지방선거에서 경찰에 단속된 전북지역 선거사범은 241명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도내에서 단속한 선거사범은 150건, 241명으로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271명)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중 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4명을 수사종결 하고, 16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제지역 통장인 A(58·여)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3월16일 한 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38명에게 해당 후보 지지를 호소해 경찰에 단속됐다.

또 지난 3일 고창군 부안면에서는 B(39)씨가 술에 취해 한 군수 후보의 현수막을 날카로운 도구로 찢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73명, 금품향응 제공 66명, 공무원 선거영향 28명, 부정선거운동 12명, 현수막훼손 11명, 사전선거운동 10명, 여론조작 8명, 기타 33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공무원 선거개입은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스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